

사설

'스님 복지'의 다각적인 검토

그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되어온 스님들의 노후복지문제가 제도화되고 실천단계에 들어간 종단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진각종 대교종 전태종 등이 최근에 종단차원의 승려노후복지정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고 불교계의 전체여론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에서도 개혁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종헌 116조에 '승려노후복지원'의 설치근거를 두고 '승려노후복지원 설치령'까지 제정 공포하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한다. 조계종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실천해갈 기대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새삼 스님들의 노후복지문제를 거론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우선 다음과 같은 역사 사회적 배경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역경 포교 도제양성이라는 한국불교의 3대불사를 이루어 낼 수 없다. 그런데 부처님은 '무소유'를 출가정신으로 가르치셨다. 이 정신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실천하려면 당연히 스님들의 복지시설과 복지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지나쳐 버릴 수 없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시민사회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하고 이른바 '개발독재'에 의한 기형적인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 자본이 일부 재벌에 집중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하여 지역 계층간의 갈등 대립이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하여 80년대부터 정착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모습이 불교계에도 나타나는 것은 자칫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종단 내부에서도 자본주의의 모순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종단분규나 종관다툼이 일어날 소지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구도자의 출가정신으로 부처님의 사상을 전파하고, 청정하게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과 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불교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불교계는 종단내부의 복지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사부대중의 새로운 인식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종단이나 범불교적으로 의료 보험조합을 설립하여 스님들의 각종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보험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

둘째, 국민연금복지법에 의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단차원의 제도 확립과 '불교성직자공제회(가칭)' 등의 설립도 연구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스님들이 역경 포교 도제양성 등의 불사에 전념하는 것도 산업재해 보험법상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있어서 보험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복지시설 복지사업의 성공여부는 재정적인 뒷받침에 달려 있다. 재정이 튼튼한 사찰에서는 출연금을 많이 내는 등 합리적인 기금운영을 통하여 모든 스님들이 골고루 출가정신인 '무소유'로 깨달음의 사회적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열린마당

뇌사 합법화

현재는 심장·폐 및 뇌기능의 불가역적 정지로 심장박동정지 호흡정지 및 동공산대(瞳孔散大)와 광반사 소실을 확인하면 사망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뇌사상태에서는 뇌간이상, 뇌기능의 정지된 후에도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심장은 짧은 기간 동안 박동을 유지할 수 있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해야하나 아니냐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뇌사를 인정하고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에 따라 첨예한 현안인 뇌사가 합법화되고 따라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장기이식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뇌사합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과 법안 추진 상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영원히 사는 큰 보시' 악용우려 불식해야

찬성 - 법 장 <생명공학실천본부장>

뇌사상태라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고도 안 끊어졌다고도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 그러나 뇌사상태는 본인에게는 물론 주위에도 고통이 따르고 의학적으로 사실상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경이다.

이런 점에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서로간의 고통을 없애고, 장기기증으로써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법개정은 꼭 필요하나 악용될 소지를 철저히 배제하는 세심한 조건이

병행되어야 한다. 법령으로 못박았을 경우 오진이나 오관으로 인해 자칫 아까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우려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판단과정에서 적어도 3인 이상의 전문의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뇌사를 인정,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고통에 빠져 있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비의 실천이다. 장기기증자에게는 불교적 삶의 구체적 실천이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공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크나큰 보시를 받아 죽어야 할 생명을 회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 더욱 큰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살아있는 생명체'

반대 - 신 현 숙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불교에서는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인간 존재의 뿌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근원적 정신인 아뢰야식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있다. 따라서 뇌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섭리를 역행하는 것은 물론 종교윤리마저도 역행하는 것이나 다름바 없다.

극단적으로 뇌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다른 환자의 새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직 죽지 않은 생명체를 해

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기증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귀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이견이 없다.

그러나 뇌사를 인정할 경우 죽음의 정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덕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장기를 사고 파는 등의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더우기 뇌사판정에 대한 의사의 도덕적, 과학적 판정이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



질 지도 미지수다.

많은 양지만 뇌사상태에서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종종 일어 오르고 있다고. 이것을 우연이고 기적이라고 한 다해도 법으로써 우연과 기적을 규정할 수는 없는 문제다.

종교 법조 의학적 의견수렴...내년 법안상정

정부관계자 의견

의회계에서는 장기이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뇌사인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법조계는 뇌사를 법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장기이식에 관한 입법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는 형편인데 체계적 추이에 맞추어 우리 복지부도 뇌사합법화를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뇌사를 인정하고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음을 밝혔다.

국민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해당부처로서 장기이식문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총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달하는 '장기이식정보센터(가칭)'를 내년중 설치할 계획

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이날 말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등의 관계자들을 포함한 뇌사인정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 찬 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서기관>

시론

因果 모르는 日의 '끝없는 망언'

요즘 철거 작업이 한창인 옛 조선 총독부 건물 중앙 홀 천장벽에 아직도 두 폭의 벽화가 남아 있다. 이 벽화는 일제 강점기의 일본화가 와다 산조(和田三造)란 사람의 작품으로 일본의 고대 신화를 내용으로 하여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인들이 이런 내용의 벽화를 식민 지배의 흥본산인 총독부 건물에 장식해 놓은 것은 그들의 고대 신화로써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였다. 최근 일본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한일합방 관련 망언을 들으면서 이 벽화의 내용을 새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고대 신화에 의하면 신공황후(神功皇后)는 중애천황(仲哀天皇)의 부인인데, 이 황후가 옛날에 삼한(三韓)을 정벌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 신화는 후대에 조작된 역사 왜곡의 표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그 뒤 사실처럼 꾸며졌고, 일본

의 대한(對韓) 감정을 촉발시켜 임진왜란 등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이 되었다. 신공황후 신화의 내용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또다시 대두되었다. 그들은 이것을 황당 한 침략 논리로 발전시켰다. 요컨대 조선은 신공황후 때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아 왔기 때문에 한국은 본시 일본의 땅이었다는 것이다. 한일합

방은 잃었던 자기네 땅을 되찾은 것이고, 조선인은 본래의 주인을 찾아 돌아오는 것이라는 실로 해괴한 논리를 전개했던 것이다.

총독부 벽화의 역사왜곡

신화의 내용 조작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역사 왜곡의 버릇은 이렇듯 나 있었다. 일본 식민 사학자들은 고구려 광개토태왕 비문을 훼손하여 한국 고대사를 조작하려 했다가 하면, 백제 왕이 왜왕(倭王)에게 하사했다는 칠지도(七支刀)를 거꾸로 왜왕이 백제 왕에게 준 것처럼 꾸미기까지 하였다.

한술 더 떠서 이른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附設)을 조작하여 왜(倭)가 4세기 중엽에 가야지역을 정벌하여 임나 일본부라는 통치기관을 설치하고 2백여년간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였다는 허실을 만들어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다시 일본은

문화주체성 확립 급선무

얼마있지 않으면 일본 식민통치의 잔재인 옛 조선총독부 건물은 우리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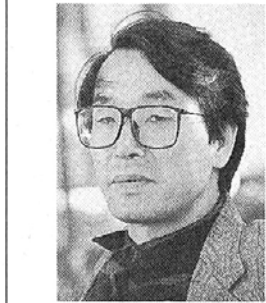
불어 일제가 한반도 침략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삼았던 신공황후 전설이 담긴 벽화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건물 하나를 헐어내고, 또 벽화가 사라진다고 그것만으로도 일본인들의 간사한 입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인의 반복되는 망언과 우리의 분노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본 스스로가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결국으로는 사죄하면서도 자신들의 지난 과거를 침략 아닌 평화로 미화하고 책임 소재를 피해당사자에게 돌리는 이중성을 버려야 함은 마땅하다.

한편으로 우리들은 그들의 망언을 영원히 잠재우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고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한 때 들끓다가 곧 시들해 지는 모습을 일본인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가슴을 뽐뿌하게 만드는 뼈아픈 말이 일본으로부터 들리고 있다. 한국의 과거사 관련 망언규탄 캠페인은 보름 정도의 시일만 지나면 끝난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잘 알고 있다는 어느 일본 기자 말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해 볼 만 한 말이다.



허균 <정신문화연구원 선임편수원>

현대만평



"걱정없소"

해인승가대학 동문회 총회 소집 공고

도제 양성을 위해 해인사 법보전문강원으로 설립돼 오늘의 해인승가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 올해로 어언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기라성같은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출된 동문들도 640여명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올해는 이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욱 뜻깊은 동문회 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경향 각지 각자의 수행처소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계실 해인승가대학 동문들께서는 꼭 동참하시어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8대 동문회에서는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여 동문지 <구광(九光)>을 창간하고, 일차로 총회 회의장에서 동문님들께 배포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 동문지를 위해 고고를 집필해주신 동문님들과 편집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문회 총회 안내

- 일 시 : 불기 2539년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1시
- 장 소 : 해인사 (전화 : 0599-31-1001)
- 상임위원회 : 불기 2539년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기 2539년(1995) 10월

해인승가대학 동문회 회장 한 보 광 합장

알림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맑은 하늘 풍성한 가을에 동학사 승가대학에서는 동학 총동문회 제20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정진중 바쁘시더라도 선후배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타마하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때 : 불기 2539년 11월 2일 (음 9월 10일)
- 곳 : 계룡산 동학사 오후 4시 ☎ (042) 825-2570

* 회의 다음날 봉암사 성지순례를 함께 하겠습니다. 개별통지는 생략하기로 하였사오니 각기 대표스님들께서 연락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학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회장 혜 등 합장